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對인도 관세 50%로 상향. 반도체에는 100% 품목관세 부과 방침
 - 연준 주요 인사, 연내 2회 금리인하 예상. 최근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유로존 6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2/4분기 기업이익은 전년비 3.1% 증가 예상
 - 일본 6월 명목임금 상승률, 4개월 만에 최고치. 실질임금 하락세는 둔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Apple의 자국 내 추가 투자 계획,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7%], 달러화 약세[-0.6%],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9월 금리인하 전망, 빅테크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제약주 중심 매물 증가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부 연준 인사의 연내 2회 금리인하 예상 발언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7%,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0년물 입찰에서의 수요 부진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3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82.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4.8원, 0.34% 하락). 한국 CDS 약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8/6일	8/5일	전일대비			8/6일	8/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45.1	6,299.2	+0.73%	국채금리 10y	미국	4.23%	4.21%	+2bp
	유럽	541.07	541.40	-0.06%		독일	2.65%	2.62%	+3bp
	중국	3,634.0	3,617.6	+0.45%		영국	4.53%	4.52%	+1bp
	일본	40,795	40,550	+0.60%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3,198.1	3,198.0	+0.00%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8.24	98.78	-0.55%	위험지표	EMBI+	-	358	-
	유로화	1.1660	1.1575	+0.73%		VIX	16.77	17.85	-6.05%
	엔화	147.37	147.62	+0.17%		WTI유	64.35	65.16	-1.24%
	위안화	7.1824	7.1840	+0.02%	원자재	구리	441.3	438.6	+0.62%
	원화	1,389.5	1,388.3	-0.09%		금	3,369.3	3,380.6	-0.3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對인도 관세 50%로 상향. 반도체에는 100% 품목관세 부과 방침

-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여 총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25%의 상호관세는 7일부터 적용되고, 새로 조정된 50%의 관세는 21일 안에 발효
- 이와 관련하여 인도 외교부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인도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발. 일부에서는 BRICs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반기를 드는 가운데, 핵심 국가인 러시아, 브라질, 인도에 미국의 보복조치가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 한편 반도체에 대해 100%의 품목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언. 다만 Apple과 같이 미국 내에 생산을 하는 기업에는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날 Apple은 자국 내에 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 구체적으로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이 자국 내로 이전되고, 일부 주요 부품의 자국 내 생산을 위한 제조업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연내 2회 금리인하 예상. 최근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

-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쉬카리 총재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단기간 내 금리인하가 적절한 결정일 수 있다고 언급. 구체적으로 연내 2회의 금리인하를 예상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영향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첨언
- 연준의 쿡 이사는 7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다소 우려스럽다고 발언. 아울러 최근의 경우와 같이 고용 결과가 이후에 큰 폭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경제의 변곡 신호일 수 있다고 부연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해시 위원장은 연준이 금리 결정을 정치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 일례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해시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지도 피력

■ Goldman Sachs, 증시는 경기침체 위험 간과. UBS는 장기적 시각에서 수익 기대

- 파올로 쉬아본 트레이더는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이 30% 수준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세계 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한편 UBS의 마크 해펠레 수석투자책임자(CIO)는 증시에서 단기적 측면의 고평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유로존 6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2/4분기 기업이익은 전년비 3.1% 증가 예상

- 6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3.1% 증가했으며, 이는 예상치(2.6%) 대비 높은 수준. 이번 결과는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수가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
- LSEG에 따르면, 역내 기업의 2/4분기 이익은 전년동기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1주일 전(1.8%)에 비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미국과의 관세합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

■ 독일, 1000억유로 규모의 전략분야 투자기금 추진. 6월 공장수주는 예상치 하회

- 정부는 방위,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분야 지원을 위해 1000억유로 규모의 투자기금 창설을 준비. 구체적으로 100억유로의 정부 자금과 900억유로의 민간 자금으로 구성될 전망. 한편, 6월 공장수주는 전월비 1.0% 줄어 전월(-1.4%)에 비해 감소세 둔화되었으나 예상치(1.0%) 하회

■ 일본 6월 명목임금 상승률, 4개월 만에 최고치. 실질임금 하락세는 둔화

- 6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비 2.5% 올라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봄철 임금협상에 의한 결과로 추정. 명목임금의 증가세가 40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여력을 높인다고 평가.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임금의 경우 전년동월비 1.3% 줄어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 다만, 감소세는 전월(-4.0%)과 비교하여 다소 둔화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 발언
-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독일 6월 산업생산, 중국 7월 수출입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금리인하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 - 블룸버그

(Stagflation is a Lot Closer Than You Think)

- 7월 신규 고용이 상당히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증가하면서 연준의 양대 목표인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 모두 반대 방향으로 이동. 특히 노동시장은 7월 실업자 수 증가와 노동참여율 감소(22년래 최저) 등으로 심각한 국면임을 시사. 이에 물가상승 우려에도 9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가 예상
- 아울러 재정적자 증가, 고율 관세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여건에서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예상. 이는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추세적 금리 인상(약 3년)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

■ 미국의 예외주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정책 전환 요구에 직면 - 블룸버그

(Bananafication Is the New Exceptionalism)

- 미국 경제는 트럼프의 강압적 관세정책 시행과 노동통제국장 해임 등 다소 극단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예외주의로 인한 회복력을 유지. 실제로 주가는 4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화 가치도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 특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동맹국의 달러화 보유 선호는 달러화 가치 제고에 기여
- 이를 감안한다면, 미국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철수를 강화할수록 동맹국가의 달러화 보유 명분이 약화되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 이에 바나나공화국(바나나 등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패 등이 만연한 경제·정치적 후진국을 의미)으로 전락할 위험을 경계하며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가 요구

■ 미국 기업의 실적전망 편차 확대, 실적 악화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 - 블룸버그

(Beware Wall Street's growing discord on earnings)

-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실적 예측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 4월 이후 평균 이익 전망치는 상승했지만, 동시에 전망치의 편차도 확대되어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 역사적으로 실적 성장기에 예측의 정확도가 높지만, 변곡점에서는 정확도가 하락. 일례로 닷컴버블 붕괴, 금융위기, 팬데믹 당시 예측 편차가 확대
- '22년 기술주 주가 조정 이후 감소했던 편차가 최근 다시 확대되는데, 이는 경기 및 기업환경 악화의 신호일 소지. 아울러 주가수익비율(PER)이 22배에 이르는 S&P500지수에 대해서도 고평가 여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 중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정책, 대출 상환 우려 등 신용문제 초래 - NYT

(China Is a Nation of Savers. Many Are Drowning in Debt.)

- 중국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이에 당국은 은행에 소비자 대출 확대 및 유연한 상환조건 마련을 촉구. 한편, '21년~'24년 동안 가계 저축이 50% 증가했으나, 동일 기간 내 채무불이행도 거의 2배로 증가. 이는 추가 대출 장려 시 가계부채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
- 아울러 개별 소비자가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경우 공식적인 파산제도 미비, 이자율과 신용점수 등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추심압박 및 수치심 유발 등의 2차 문제도 초래. 이에 당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호소와 사회안전망 마련 요구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제 효과는 불충분

■ 미국 트럼프 관세, 대규모 정부수입 증가에도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 - WSJ

(The Tariff Effect: Billions in Revenue but No Economic Earthquake)

■ 미국 기업의 이익 성장, 기술기업 등 일부 분야에 편중 - Financial Times

(Without tech, where's the profit growth?)

■ 미국 노동통계국의 경제 지표, 자금인력 감축 등으로 신뢰도 저하 - Financial Times

(US labour data agency was teetering even before Donald Trump fired its ch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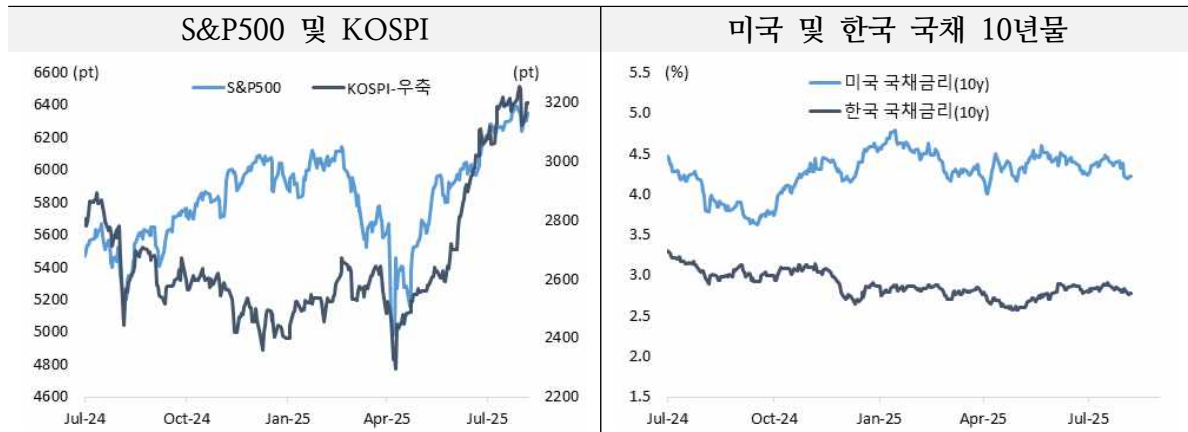
■ 유럽 기업의 양호한 2/4분기 실적, 향후 전망도 긍정적임을 시사 - Financial Times

(European business has shown surprising resil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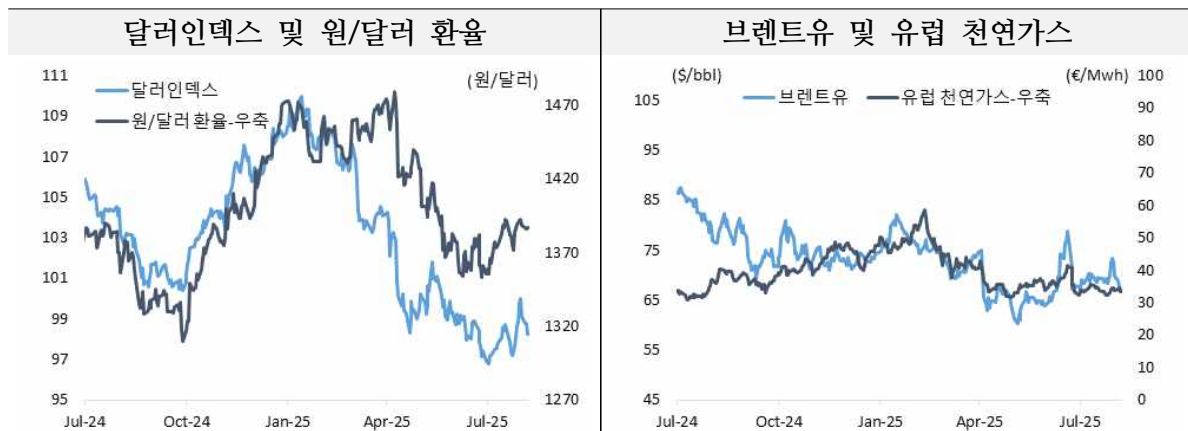
■ 미국의 對인도 러시아産 원유 수입 제재, 중국의 반사이익 초래할 소지 - The Economist

(If America goes after India's oil trade, China will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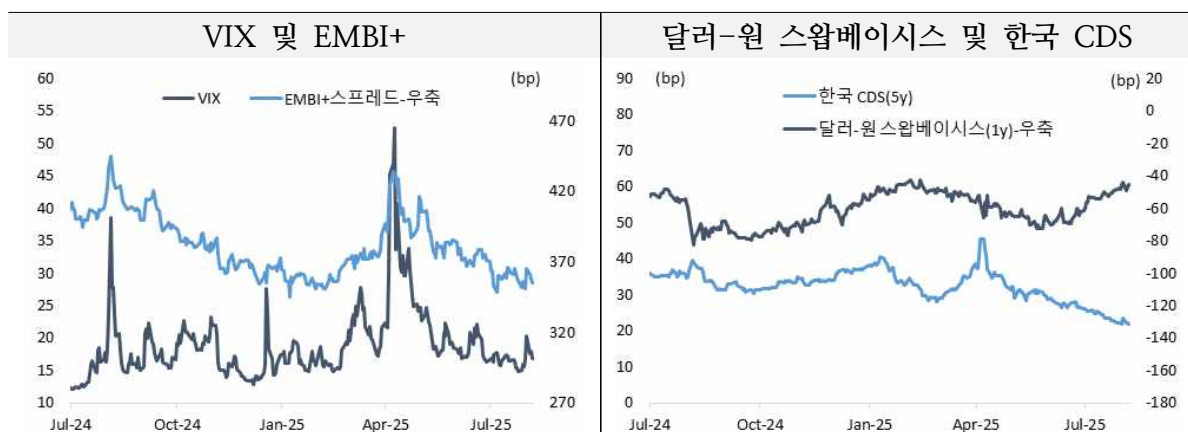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